

스웨덴인의 국민적 특성 관련 연구 동향의 분석

이성준*

본 연구는 18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발표된 스웨덴인의 국민적 특성 또는 ‘스웨덴다움’ 관련 문헌을 수집하고 그 흐름을 정리·분석한 후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헌 검토 결과, 본 연구는 이를 크게 세 가지 범주, 즉 1) 민족주의 관점, 2) 사회과학 관점 그리고 3) 비판과학 관점의 문헌으로 나눌 수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민족주의 관점의 문헌과 이후 사회과학 관점의 문헌은 1) 극단적 개인주의, 2) 자연에 대한 사랑 그리고 3) 실용성, 객관성 및 합리성 등을 스웨덴인의 대표적인 국민적 특성으로 꼽았다. 반면, 비판과학 관점의 문헌은 국민적 특성의 내용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이념 및 권력 관계를 파악하는 데 더욱 더 많은 관심을 쏟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총 네 가지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주제어: 스웨덴, 국민적 특성, 스웨덴 문화, 민족주의, 내셔널리즘, 국가 낭만주의, 인종 차별

* 한국의국어대학교 스칸디나비아어과 강사

1. 서론

다른 나라보다 사회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경제 성장과 복지국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 스웨덴은 미래 한국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사회로서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국내 스웨덴 지역학 연구도 2000년대 중반 이후로 그 수가 대폭 증가하기 시작했다(이성준, 김기수, 2018). 이들 연구 가운데 상당수는 소위 ‘스웨덴 모델’을 중심으로 스웨덴 사회의 다양한 측면 - 예를 들어, 복지국가 또는 노사 관계 등 - 을 살펴본 바 있으며, 이는 스웨덴 사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히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 가운데 하나는 한 사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데에 어쩌면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특성, 즉 스웨덴인의 국민적 특성 또는 비슷한 의미로 사회적 성격 또는 의식구조(Swedishness) 등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했으며 종종 매우 피상적으로, 또는 지나치게 결정론적 차원에서 다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학문적 분위기가 형성된 가장 큰 원인으로는 - 물론, 다양한 원인을 꼽을 수 있겠지만 - 아마도 대부분의 관련 연구자가 ‘스웨덴 모델’을 사회 구조적 기능주의 관점에서 경제 발전에 따른 사회 구조 변화의 결과물 혹은 정치적 관점에서 계급 간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보고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경제적 여건, 제도적 환경 또는 정치적 지형 등은 모두 ‘스웨덴 모델’을 가능케 한 중요한 필요조건 가운데 하나임에는 분명하지만, 결코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이는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결국 ‘스웨덴 모델’을 가능케 한 주체로서 ‘스웨덴인’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장기간에 걸쳐 복잡한 역사·문화적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된 스웨덴인의 국민적 특성 또는 국민 정체성(national identity)에 관한 충분한 이해는 ‘스웨덴 모델’ 또는 더 나아가 스웨덴 내 다양한 사회적 현상을 이해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박병현, 2005).

본 저자가 파악한 바로는 국내에서 해당 주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연구 논문은 지금까지 총 두 편이 발표되었다. 먼저, 변광수(1997)는 오케 다운

(Åke Daun)의 저서 『스웨덴인의 의식구조: 비교 관점에서(Svensk mentalitet: ett jämförande perspektiv)』 (1994) 을 주로 인용하면서 스웨덴인의 의식구조를 총 6가지 심리적 특성, 즉 1) 높은 준법정신, 2) 과묵성, 3) 수줍음, 4) 자주성, 5) 정직성 그리고 6) 감정 억제 등으로 정리한 바 있다. 또한, 노명환(2009)은 스웨덴의 역사를 간략하게 개괄한 후 주로 비교문화 연구자의 선행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서 스웨덴인의 민족적 특성으로 ‘중용의 합리성’을 꼽은 바 있으며 이는 자유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공동체주의가 사회민주주의로 조화로운 귀결을 이루는 데 이바지했다고 적고 있다. 검색 범위를 일반 서적으로 넓히는 경우 특히 몇몇 번역서가 눈에 띈다(예. 마이클 부스의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들』).

물론, 이들 논문 및 서적은 스웨덴인의 국민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동시에 지나치게 단편적인 서술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히 그동안 이루어진 각종 관련 선행 연구를 총체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지 못하다는 뚜렷한 한계점을 갖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금까지 발표된 스웨덴인의 국민적 특성 관련 연구 결과를 검토·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스웨덴 지역학 연구의 방향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 국가 또는 사회 구성원이 공통으로 공유하는 국민적 혹은 민족적 특성의 존재 여부는 특히 인류학 및 민족지학(ethnography) 분야에서 매우 오랫동안 폭넓게 논의된 바 있으며, 이들 연구 가운데 상당수는 다양한 경험적 증거를 바탕으로 그 존재 여부를 강력하게 부정한 바 있다(예. Barth, 1969).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비교문화 연구 및 문화심리학 분야에서는 다양한 문화의 체계적인 비교를 통해 국가 간 문화적 차이를 실증적 차원에서 분석,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형편이다(예. Schwartz, 2006). 이러한 학제 간 뚜렷한 연구 결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가급적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스웨덴인의 국민적 특성 관련 논의를 종합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분명 학문적 차원에서 스웨덴, 혹은 더 나아가 북유럽 사회를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충분히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최근 스웨덴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이 특히

‘웰빙’을 중심으로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연구는 또한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스웨덴인의 국민적 특성 관련 선행 연구물의 수집을 위해 총 4개의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 엔진이 활용되었다. 먼저, 국제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 엔진의 경우 Web of Science와 Scholar Google이, 그리고 스웨덴의 경우 Swepub과 Libris가 활용되었다. 다양한 검색어가 시도되었는데 최종적으로 ‘svenskhet(Swedishness)’, ‘svensk mentalitet(Swedish mentality)’ 그리고 ‘svenskt folklyne(Swedish national character)’ 등 세 가지가 사용되었다. 물론, 검색어로 ‘svensk kultur(Swedish culture)’ 또는 ‘nationell identitet(national identity)’ 등이 포함되는 경우 훨씬 많은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이 경우 스웨덴인의 국민적 특성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 여러 다른 연구물까지 검색 결과에 포함되는 관계로 사용되지 않았다.

검색 방법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점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첫째로, 본 연구는 스웨덴인 연구자가 발표한 연구물만을 수집했다. 이는 저자가 스웨덴인인 경우로 검색 결과가 한정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위 세 가지 검색어가 사용된 경우, 검색 결과의 대다수는 스웨덴인이 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검색 결과의 통일성을 위해 이와 같은 조건이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둘째로, 다양한 검색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스웨덴 문화와 다른 나라 문화 간 차이점을 살펴본 비교문화 연구가 꽤 존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이들의 포함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 비록 대부분의 비교문화 연구가 스웨덴인의 국민적 특성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일부 연구는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자는 이를 연구 범위의 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의 문제로 보았으며 최종적으로 특히 인용 수가 많은 연구의 경우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음을 밝

한다. 이후 이러한 검색 과정을 거쳐 확인된 연구물의 학습이 진행되었다.

수집된 연구물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초기 검색 결과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매우 빈번하게 인용되는 중요 문헌이 -특히 1800년대 문헌을 중심으로 - 추가로 다수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들도 학습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와 같이 수집된 연구물의 참고 문헌을 바탕으로 추가 연구물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연구 범위가 불필요하게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 학습은 가급적 본 연구의 취지와 정확하게 부합하는 연구물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학습 결과, 수집된 각종 서적 및 논문을 역사적 그리고 이론적 배경에 따라 크게 세 덩어리, 즉 1) 민족주의 관점, 2) 사회과학 관점 그리고 3) 비판과학 관점에서 바라본 스웨덴인의 국민적 특성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후 이들 덩어리 간 비교를 통해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 과제가 도출되었다.

3. 스웨덴인의 국민적 특성: 세 가지 시각

3.1 민족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스웨덴인의 국민적 특성

수집된 선행 연구 가운데 절대다수는 스웨덴인의 국민적 특성 관련 논의의 시초를 1800년대 초중반 스웨덴에서 지배적인 이념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국민 낭만주의(national romanticism) 또는 비슷한 의미로 민족주의(nationalism)의 영향을 받아 쓰인 각종 글에서 찾고 있다. 역사적으로 1800년대는 중세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4개 계급 -즉, 귀족, 성직자, 상공인, 농민- 체제가 무너지고 신흥 자본가 및 무산 계급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신분제 중심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국민 공동체 개념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한 매우 혼란스러운 과도기적 시기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하에 당시 스웨덴 식자층은 스웨덴 국민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을 수 있는 매개체로서 고대 역사 및 전통문화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고대 바이킹 전사와 중세 자유농민은 종종 소위 가장 '원형적인 스

웨덴인의 상'으로 묘사되었다(Thurfjell, 2019).

관련 초기 저작물로는 예타회(Götiska förbundet; 영어로는 Geatish Society)가 출간한 비정기 문예지 이두나(Iduna)에 수록된 에릭 구스타프 예이에르(Erik Gustaf Geijer)와 에사리아스 테그네르(Esaiaas Tegnér)의 각종 시 및 산문, 그리고 칼 요나스 루브 알름크비스트(Carl Jonas Love Almqvist)의 수필 『스웨덴적 가난의 의미(Den Svenska fattigdomens betydelse)』(1838) 등이 주로 언급된다. 전자의 경우 대표작으로 예이에르의 시 『Vikingen(바이킹)』(1811)과 『Odalbonden(자유농민)』(1811)등을 꼽을 수 있는데 여기서 바이킹은 자연을 사랑하고 독립심이 강하며 모험을 즐기고 명예를 중시하는 전사로, 그리고 자유농민은 자연에 순응하며 홀로 묵묵하게 자기 일을 수행하는 고독하고 강인한 남성으로 묘사되고 있다. 물론, 시적인 표현을 빌려 표현된 관계로 이들 작품 속에서 구체적인 스웨덴인의 특성을 뽑아내는 것은 다소 애매모호하지만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모습, 즉 1) 자연을 사랑하며 그 안에서 고독한 자유를 즐기고, 2) 자신이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후자, 즉 1838년 출판된 알름크비스트의 『스웨덴적 가난의 의미』는 전자의 경우와 달리 수필 형식으로 쓰인 관계로 훨씬 구체적으로 원형적인 스웨덴인의 상, 또는 민족적 혼(folksjäl; 영어로 national soul)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참고로, 본 문헌은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각종 연구물에서 매우 빈번하게 인용된 문헌 가운데 하나로 꼽힐 수 있다. 알름크비스트는 먼저 스웨덴 내 사회 집단을 두 부류, 즉 농부(bondfolket)와 사회 지도층(herrskapet)으로 나눈 후 왜 이들 간 관계가 서로 적대적인지 스스로 묻는다. 이에 대한 답으로 그는 사회 지도층이 프랑스, 독일 혹은 영국 등 외국의 가치를 추구함과 동시에 스웨덴적 가치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로 말미암아 사회 지도층은 더는 농민을 이끌 힘을 갖지 못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이는 농민마저도 제대로 된 지도자를 갖지 못하고 편협한 시각에 휩쓸리면서 스웨덴적 가치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알름크비스트는 스웨덴적 가치, 즉 스웨덴인의 민족적 혼으로 '가난'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Att upphöja allt svenskt såsom uteslutande förträffligt, eller åtminstone bättre än allt annat i världen, är långt ifrån äkta svenskt. ... ett enda likväl – ett visst stort – har svensken enskildt ifrån andra i Europa blifvit ämnad till: det är till fattigdom. ... Svensken är fattig. Förstår han detta, så har han vunnit kärnan för sin nationalitet, och är oöfvervinnelig. Att vara fattig, det betyder att vara hänvisad på sig sjelf. ... Att kunna det rätt, med fullkomlig frihet, raskhet, sjelfständighet: i sig finna en outtömlig hjälpkälla, och derur med färdighet, fintlighet, snabbhet upphemta hjälpmedlen i alla omständigheter – denna kraft är grundväsendet i svenska nationligheten, så som den af Gud och vår natur blifvit utstakad. (Almqvist, 1995, p. 290)”

(번역) “모든 스웨덴적인 것을 유일하게 뛰어난 것으로 또는 최소한 전 세계 다른 모든 것보다 좋은 것으로 추켜세우는 것은 실제 스웨덴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 다른 유럽 나라와 달리 스웨덴 사람만이 홀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유일한, 하지만 분명 커다란 것은 바로 가난이다. ... 스웨덴 사람은 가난하다. 만약 그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그는 우리나라의 핵심을 얻어낸 것이며 이는 아무도 꺾을 수 없는 것이다. 가난하다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 완벽한 자유, 능숙함, 독립심을 가지고 올바른 것을 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자기 안에서 한없는 도움의 원천을 발견하고 이로부터 어떠한 환경에서도 노련하고 숨쉴 있고 빠르게 도움이 되는 수단을 얻어내는 것 – 이러한 힘이 바로 신과 자연이 가져다준 스웨덴적인 것의 핵심이다.”

다시 말해, 척박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럽 대륙으로부터 고립된 스웨덴은 역사적으로 항상 가난했으며, 따라서 스웨덴인 -특히, 농부- 는 다른 유럽인과 달리 물질적으로 풍요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도움도 구하지 않고 홀로 맡은 바 일을 다 하면서 자연 속에서 완벽한 자유를 추구하는 -즉, 자신을 항상 가난 속에 위치시

키는 삶의 방식을 추구해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심지어 스웨덴인의 경제 개념과 관련하여 외국인이 무언가를 소유하고자 돈을 모은다면, 스웨덴인은 오히려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 돈을 모은다고 적고 있다. 더 나아가 그는 이러한 스웨덴의 ‘가난’을 척박하고 단순한 스웨덴의 자연, 음악, 문학, 예술 그리고 언어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리하자면, 이는 스웨덴인의 국민적 특성이 마치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Nietzsche)의 ‘위버멘쉬(Übermensch),’ 즉 초인 사상을 떠올리게 하는 완벽한 자유를 통한 절대적 개인주의, 물질적인 삶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 그리고 추가로 ‘넓은 아량(givmildhet)’, ‘후한 대접(gästvänlighet)’, ‘높은 자부심(stolthet)’, ‘대범함(storsinhet)’ 등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Żumda-Trzebiatowska, 2003).

알름크비스트의 『스웨덴적 가난의 의미』는 처음 출판된 지 약 18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스웨덴인의 국민적 특성을 설득력 있게 묘사한 것으로 널리 평가받고 있다. 한 가지 특히 눈여겨 볼만한 점은 알름크비스트와 예이에르가 제시한 스웨덴인의 국민적 특성이 한 편으로는 모두 완벽한 자유 또는 거의 고독에 가까운 타인으로부터의 독립 등과 같은 개인의 내면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1800년대 중후반 이후 등장한 여러 스웨덴 지식인도 스웨덴인의 국민적 특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수집된 문헌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극작가이자 소설가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August Strindberg)는 자신의 수필 『국민성과 스웨덴적인 것(Nationalitet och svenskhet)』(1884)에서 스웨덴인은 자신의 것을 사랑함과 동시에 이를 과소평가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러한 태도는 이들의 국민 정체성 인식에서도 나타난다고 적고 있다. 다시 말해, “스웨덴 사람은 먼저 자신이 스웨덴 사람이기를 바라지만, 또한 기꺼이 외국인이기를 바란다(Strindberg, 1884: 154)”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스웨덴인의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를 단지 부정적 차원에서 바라보기보다 동시에 이들에게 있어서 국가 자부심은 사실상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더불어, 그는 스웨덴인의 ‘내성적이고(inåtvänt)’, ‘수줍어하며(blyghet)’, ‘심사숙고하는(något

grubblande)’ 심리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자기 생각을 쉽게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도 짚는다. 마지막으로, 그는 글을 맺으면서 스웨덴인 특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편견 없이 잘 짚은 글로서 한 독일 작가의 책 『스웨덴, 나라와 국민(Schweden, Land und Volk)』 (1882)을 소개하면서 여기서 한 구절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는데, 여기서 ‘이상적인 정신’과 ‘건강하고 실용적인 정신’이 의미하는 바는 위에서 예이에르와 알름크비스트가 언급한 스웨덴인의 특성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Ett starkt utpräglat sinne for självstandighet, en djupt rotad personlighetskänsla, förenad med ett sunt praktiskt förnuft, som lär att hålla den rätta måttan, det är den svenska karaktärens grunddrag ... Denna lyckliga förening av ett djupt idealt och ett sunt praktiskt sinne uppenbarar sig icke blott på alla områden av det dagliga livet, utan även i Sveriges vetenskap och konst. (Strindberg, 2003, p. 170~171)”

(번역) “자립을 추구하는 강하고 뚜렷한 정신, 올바른 기준을 지키는 건강하고 실용적인 이성과 결합한 뿌리 깊은 개인에 대한 자각, 바로 이것이 스웨덴적 특성의 요점이다. ... 이상적인 정신과 건강하고 실용적인 정신 간 행복한 결합은 단지 일상생활 영역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과학 및 예술 영역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스트린드베리와 동시대 인물로서 시인이자 소설가로 활동한 베네르 폰 헤이덴스탐(Verner von Heidenstam)은 자신의 수필 『스웨덴인의 특성(Omsvenskarnas lynne)』 (1896)에서 스웨덴인은 자국의 것을 무시하고 외국의 것에 지나친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본다. 그는 스웨덴인은 보수성이 지나치게 부족하며(brist på konservatism), 과거의 좋은 것을 잃어버리고 현대적인 것을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개탄한다. 다시 말해, 스웨덴인은 과거의 용맹한 전사에서 오랫동안 평화로운 시대를 누리면서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상인으로 변했으며, 이

러한 과정에서 과거 스웨덴인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국민적 특성은 사라졌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동시대 활동한 사상가이자 교육자 엘렌 케이(Ellen Key)는 방금 위에서 소개된 『스웨덴인의 특성』 및 다른 몇몇 헤이덴스탐의 글을 읽고 이에 대한 생각을 자신의 글 『Om patriotismen. Öppet brev till min vän Verner von Heidenstam(애국심에 관하여. 나의 친구 베네르 폰 헤이덴스탐에게 보내는 공개 서신)』(1897)에서 밝힌 바 있다. 여기서 그녀는 헤이덴스탐이 자신의 조국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일깨워주었다는 점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애국심의 ‘어두운’ 측면, 즉 군사주의(militarismen), 반계몽주의(obskurantismen), 보호무역주의(protektionismen) 그리고 반유대주의(antisemitismen) 등도 함께 지적한다. 이와 더불어 그녀는 스웨덴인의 특징으로서 ‘이상주의적 용맹성에 대한 사랑(kärleken till det idealistiskt vågsamma)’을 꼽으면서 이를 ‘돈키호테적 특성(Don Quixote-drag)’으로 명명하고 그 원형을 구스타프 아돌프 2세(Gustaf II Adolf) 및 칼 12세(Karl XII) 등과 같은 국민적 영웅에게서 찾고자 노력했다. 더불어 그녀도 스트린드베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특히 상류층의 이중적인 사고방식을 지적하면서 스웨덴이 빠른 속도로 미국화되고 있다고 보았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혼재하는 편이다.

이 외에도 여러 지식인이 스웨덴인의 국가적 특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언급을 한 바 있지만, 이후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 더불어, 해당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 글로는 통계학자 구스타브 순드베리(Gustav Sundbärg)의 저서 『스웨덴인의 특성(Det Svenska folklynnnet)』(1911)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문헌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인용되었으며, 책이 출판된 당시에도 스웨덴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순드베리는 1800년대 중반부터 1900년대 초반 사이 스웨덴 전체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약 150만 명의 스웨덴인이 조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대량 이민을 떠난 이유를 탐구하면서 이를 스웨덴인의 고유한 특성에서 찾고자 노력했다. 그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자신의 저서에서 소개하면서 이를 크게 세 가지, 즉 1) 빈곤한 심리(brist på psykologi), 2) 빈곤한 국가관(bristen på

nationell insikt) 그리고 3) 빈곤한 경제 관념(saknar ekonomisk begåfning) 등으로 정리했다.

첫째로, ‘빈곤한 심리’란 스웨덴인은 자연을 사랑하지만, 인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자연을 노래하는 스웨덴 전통 민요 및 자연물의 이름을 딴 스웨덴 성씨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스웨덴인은 오래전부터 자연을 사랑했음을 강조한다. 반면, 스웨덴인은 인간에 대해서 별 관심을 두지 않는데 이는 이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이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스웨덴인의 심리가 쾌락과 불편을 구분하고 오직 쾌락만을 추구하는 초보적인 심리 발달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데, 다시 말해 이들은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한 후, 마음에 드는 사람과만 관계를 맺으려 하며, 왜 자신이 누구는 마음에 들고 누구는 그렇지 않은지 그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스웨덴인은 항상 경직되고 냉정해 보이며 종종 남을 함부로 대하는(öfversitteriet) 태도를 보인다.

둘째로, ‘빈곤한 국가관’이란 다른 유럽 국가에서 1800년대 전반에 걸쳐 점진적으로 형성된 근대적 의미의 ‘국가 감정(nationalkänslan)’이 스웨덴의 경우 유럽 대륙으로부터의 오랜 고립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으며,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서 애국심이란 아직 단순한 감정적 차원의 국가 자부심(nationalstoltheten) 또는 “애향심(hemkänsla)”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국가 감정’이란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국왕이 국민을 하나로 묶는 구심적 역할을 해왔다면, 이후 왕권이 무너지고 자유주의가 지배적인 이념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무엇, 좀 더 구체적으로는 -비록, 순드베리는 이를 다소 모호하게 표현하지만- 스웨덴 사람이라면 ‘마치 공기와 같이 어디서나 느낄 수 있는’ 국가 문화 또는 혼을 의미한다. 그는 바로 이러한 ‘빈곤한 국가관’이 스웨덴인이 자신의 것을 무시하고 외국의 것을 갈망하는 이유라고 지적하면서, 동시에 스웨덴인은 다른 여러 ‘홀륭한’ 특성 -예를 들어, ‘후한 대접’, ‘공손함’, ‘상냥한 사교’ 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빈곤한 경제 관념’이란 부를 축적할 줄 모르는 스웨덴인의 특성을 의미한다. 그는 “스웨덴인은 용맹한 전사이자, 법을 잘 준수하는 시민이며, 훌륭한 농부이자, 친절한 작업반장 그리고 근면 성실한 일꾼(p. 80)”이지만 돈을 벌고 저축하는 데 항상 서툴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과거와 달리 현재는 무력으로 누군가를 정복하는 것이 아닌, 이해와 설득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해졌지만, 스웨덴인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그는 스웨덴인은 근본적으로 단지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이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 아마도, 막스 베버(Max Weber)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1905)에서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에 대한 무의식적 의무감 때문이라고 적고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당대 스웨덴 지식인은 스웨덴인의 국민적 특성과 관련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매우 비슷한 점에 주목하고 있었던 것은 매우 분명해 보인다. 다시 말해, 스웨덴인은 1) 인간보다 자연을 사랑하며, 2) 대인 관계 시 지나치게 차갑고 뻣뻣하게 보일 정도로 개인의 자유, 독립 또는 자주성 등을 중시하고, 3) 자신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외국의 것을 높게 평가하며, 4) 의무감을 가지고 자신이 맡은 바 일을 성실하고 수행하고, 5) 손님을 환대하고 남에게 넉넉하게 베푸는 특성 등을 가진다는 것이다. 반면,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는 원인에 관해서는 저자마다 의견이 다소 분분한 편이며,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깊이 살펴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본 연구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관계로 다음 기회로 넘기고자 한다.

또 한 가지 의견이 다소 갈리는 지점으로는 이들 특성에 대한 저자의 서로 다른 개인적 평가 부분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슌드베리의 경우 암묵적으로 단선적 문화 진화에 대한 강한 개인적 믿음을 여러 군데에서 보이면서 스웨덴의 문화는 유럽 대륙 국가의 문화보다 사실상 한 단계 낮은 수준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알름크비스트나 스트린드베리의 글에서는 이러한 ‘숨겨진’ 전제가 잘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현대적 관점에서 보자면 다소 문화 상대주의 시각에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 아마도 이러한 차이는 저자의

직업적 배경, 문체 혹은 시대적 배경의 차이 등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1900년대 초 이후 국민 낭만주의 또는 민족주의 관점에서 스웨덴인의 국민적 특성을 살펴보는 연구는 이전과 달리 주로 인종 생물학(rasbiologi) 분야에서 주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수집된 문헌에서 종종 등장하는 관련 연구로는 교육학자이자 심리학자였던 게오르그 브란델(Georg Brandell, 1873~1958)의 『스웨덴 국민의 특성: 스웨덴 국민의 심리학(Svensk folkkaraktär: Bidrag till svenska folkets psykologi)』(1944) 등을 꼽을 수 있다.

3.2 사회과학 관점에서 바라본 스웨덴인의 국민적 특성

1900년대 초반 이후 민족주의 관점에서 스웨덴인의 국민적 특성을 살펴보는 연구는 사실상 거의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적어도 1970년대 이전까지는 몇몇 극소수의 비교문화 연구를 제외하고 사실상 이에 관한 학문적 차원의 논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스웨덴 내 외국인 이민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관련 논의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크게 두 덩어리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덩어리는 스웨덴인의 국민적 특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암묵적 가정하에 이를 비교적 객관적 관점에서 - 보통, 비교문화 연구 분야에서 사용되는 방법론을 사용해 - ‘추출’하고자 노력하는 연구를 포함한다. 두 번째 덩어리는 스웨덴 국민 대다수가 공통으로 공유하는 국민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또는 보통 그 존재 여부를 자체를 부정하고- 그 내용에 관심을 두기 보다 관련 논의 안에 숨어있는 이념 및 권력 관계를 비판적 차원에서 살펴보는 연구를 포함한다.

수집된 연구 가운데 절대다수는 두 번째 덩어리로 분류될 수 있으며, 첫 번째 덩어리에 속하는 연구 수는 - ‘지엽적인’ 여러 문화비교 연구를 제외하면 - 상대적으로 훨씬 적었다. 물론, 이에 대한 원인으로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1980년대 이후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불어닥친 포스트모더니즘 사상 그리고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의 도래와 함께 특히 서구 사회에서 지배

적인 담론으로 자리 잡은 국제화 또는 세계화 관련 논의 등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먼저 두 번째 덩어리에 해당하는 연구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 즉 1) 오케 다운(Åke Daun)의 『스웨덴인의 의식구조: 비교 관점에서(Svensk mentalitet: ett jämförande perspektiv)』 (1994) 그리고 2) 헨릭 베리그렌(Henrik Berggren)과 라쉬 트레고드(Lars Trägårdh)의 『과연 스웨덴인은 인간인가?: 현대 스웨덴에서 연대와 독립(Är svensken människa?: gemenskap och oberoende i det moderna Sverige)』 (2015)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3.2.1 오케 다운의 『스웨덴인의 의식구조: 비교 관점에서』

민족학자(ethnologist) 오케 다운의 저서 『스웨덴인의 의식구조』는 스웨덴인의 국민적 특성을 살펴보는 여러 선행 연구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연구로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문헌 가운데서도 단연코 가장 많은 인용 수를 보인다. 그는 이전에 발표된 대규모 비교문화 연구(예. 유럽 가치관 조사), 본인이 직접 여러 국가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그리고 스웨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민자 면담 등 다양한 출처의 자료를 수집, 이를 통해 스웨덴인의 의식구조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수집된 자료의 성격, 더불어 책의 부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는 위에서 소개된 민족주의 관점에서 쓰인 여러 문헌과 달리 이를 비교문화 관점에서 살펴본다.

기본적으로, 비교문화 연구는 한 사회 또는 집단의 문화를 그 문화에 이미 익숙한, 따라서 이를 당연히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또는 아예 그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내부자가 올바르게 기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며, 따라서 오직 서로 다른 문화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또는 적어도 외부인의 시각에서 자신의 문화를 바라봄으로써 문화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예. Kluckhohn & Strodtbeck, 1961). 여기서 ‘핵심’이란 문화의 ‘내용’, 즉 ‘가치 체계(value system)’를 의미하는데, 이는 한 사회 또는 집단이 필연적으로 다양한 대내외적 문제에 직면,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형성된, 그리고 대다수 구성원이 그 효과성을 인정하는 해결 방법으로서 세대에 걸쳐 반복

적인 학습을 통해 이들 구성원에게 내면화되며, 더 나아가 이들의 집단 차원의 정체성 및 성격을 암묵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비교문화 연구는 일반적으로 문화를 본질주의(essentialism) 관점에서 ‘실재하는’, 즉 면밀한 비교를 통해 횡단적 차원에서(cross-sectional) 객관적으로 관찰·기술할 수 있는 가치 체계로 간주한다. 다운의 ‘의식구조’ 개념도 - 비록, 그는 이를 주로 ‘성격’이란 단어로 표현하지만 - 이러한 비교문화 연구의 문화 개념과 사실상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더불어, 그는 자신의 글 전반에 걸쳐 그가 제시한 스웨덴인의 의식구조가 지나치게 일반화된 스웨덴인의 특성으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정도’의 문제로 볼 것을 주문한다.

다운은 대인 관계 시 나타나는 스웨덴인의 성격 특성으로 총 5가지, 즉 1) 수줍음(blyghet), 2) 독립심(oberoende), 3) 갈등 회피(konfliktundvikande), 4) 솔직함(ärlighet) 그리고 5) 개인주의와 집단주의(kollektivism kontra individualism) 등을 꼽는다. 먼저, ‘수줍음’이란 자기 생각 또는 의견을 남에게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꺼리며, 만약 이것이 집단 전체의 지지를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조용한 그리고 수동적인, 즉 ‘겸손한(anspråklöshet)’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스웨덴인의 성격 특성은 이들의 감정 처리 방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데, 다운은 미국 의사 허버트 헨딘(Herbert Hendin)의 저서 『자살과 스칸디나비아(Suicide and Scandinavia)』(1964)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스웨덴인은 자신의 감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이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나치게 방어적인 혹은 이성적인 태도를 취하며, 이는 결국 다른 문제 - 예를 들어, 지나친 음주 - 를 야기한다고 적고 있다. 이는 마치 순드베리의 ‘빈곤한 심리’ 개념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스웨덴 문화를 설명할 때 빈번하게 언급되는 ‘라곰(lagom)’ 및 ‘안테의 법칙(Jantelagen)’ 등과 같은 개념도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는 문화적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힐 수 있을 것이다. 실증 연구 결과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예를 들어, McCroskey, Burroughs, Daun & Richmond(1990)는 스웨덴 학생과 미국 학생을 비교한 후, 이들의 커뮤니케이션 불안 수준(communication apprehension)은 비슷한 모습을 보였지만 스웨덴 학생의 대화 욕구(willingness to communicate)는 미국 학생보다 훨씬 낮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둘째로, ‘독립심’이란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홀로 자연 속에 묻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그는 자신의 또 다른 저서 『핀란드인과 스웨덴인의 성격(Finsk och svensk personlighet)』(1988)에 포함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스웨덴인의 약 70%가 친구와 떨어져 오래 생활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적고 있다(핀란드인의 경우 41%). 더불어 그는 이러한 스웨덴인의 특성이 자녀의 독립심을 유난히 강조하는 부모의 양육 방식 때문에 형성된다고 주장하며, 이는 때로는 자녀의 지나친 분리 불안, 그리고 이에 따른 정서적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또한 스웨덴의 높은 1인 가구 비율 및 이혼율 그리고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뚜렷한 구분 등은 모두 이러한 특성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셋째로, ‘갈등 회피’란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직접적인 대립을 피하고자 하는 성격 특성을 의미한다. 이는 위에서 언급된 ‘수줍음’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다운은 이러한 특성이 스웨덴 내 다양한 사회적 현상이 이를 통해 설명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예로 부모의 자녀 처벌 금지, 조직 내 ‘감독자’가 아닌 ‘상담자’로서 리더의 위치, 정당 간 의견 충돌 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 등을 꼽고 있다.

넷째로, ‘정직성’이란 스웨덴인은 일반적으로 자신을 정직하며 거짓말에 서투른 사람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외국인의 시각에서 ‘순진함(naivt)’ 및 ‘천진난만한(blöogat)’, 즉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다운은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로 스웨덴 문화의 동질성을 꼽는다. 다시 말해, 동질적인 문화로 말미암아 스웨덴인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과정에서 높은 유연성 및 적응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 즉, 다른 사람의 행동을 ‘해석’할 필요가 별로 없으며 - 이는 주어진 규칙 또는 규정이 근거한 서로 간 관계의 ‘투명함’, 즉 ‘정직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더불어, 다운은 이러한 성격 특성이 외국인의 시각에서 스웨덴 사회가 지나치게 경직된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란 스웨덴인은 개인적 차원에서

심지어 가족 구성원을 포함,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 거의 '고독'에 가까운- 철저한 개인의 독립을 추구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적 특성을 보이지만 사회적 차원에서 서로 간 동질성을 바탕으로 강한 연대를 추구하는 - 어찌 보면, 거의 전체주의에 가까운 - 집단주의적 특성도 동시에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운은 스웨덴인의 이러한 다소 극단적인 개인주의적 특성이 초래하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 가운데 하나로 스웨덴 법에서 가족 및 친족의 법적 지위는 사실상 무시되는 편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또한 높은 집단주의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으로 위에서 언급된 대인 관계 시 '갈등 회피' 및 높은 조합 참여율(예. 노조 운동) 등을 꼽는다.

이후 다운은 지금까지 소개된 스웨덴인의 여러 성격 특성을 감정과 이성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웨덴인의 의식구조를 정리한다. 그의 주장을 따르면 스웨덴인은 분노, 슬픔 등과 같은 감정을 외부로 잘 표출하지 않으며 따라서 외부인의 시각에서 차갑고 과묵하게, 또는 긍정적인 의미로 안정되고 겸손하게 보이는 편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이들에게 감정이 이성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겨지기 때문인데, 이러한 맥락에서 이성적인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것으로 치부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이들은 실용성, 합리성, 객관성 등 인간의 이성적 측면을 중시하며 심리적 차원보다 물질적 차원에서 모든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을 당연시 여긴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웨덴인은 스스로 자신의 국가를 전 세계에서 가장 근대적이고 합리적인 국가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이들의 국민 정체성의 근간을 구성한다(modernitet som nationell självbild). 스웨덴인에게 있어서 하지 축제 또는 성 루시아 축일 등은 단순한 축제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며, 따라서 많은 스웨덴인은 스웨덴을 특정한 문화가 없는 국가로 여기기도 한다. 반면, 이는 전통 문화를 고수하는 이민자 집단을 상대적으로 비근대적인 집단으로 간주하는 근거로 작용하기도 한다.

비록 다운은 책의 앞부분에서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 자신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지만 적어도 본 연구자는 그가 제시한 각종 스웨덴인의 성격 특성이 체계적인 이론적 근거 그리고 수집된 자료의 면밀한 분석 없이 다소

즉석에서 직관적으로 열거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와 비슷한 주장을 Montgomery(1989)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는 다운이 제시한 각종 설문조사 수치를 분석한 후 이들 수치가 그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약한 편이며,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완전히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Karlsson(1994)는 다운의 연구 결과를 크게 두 가지 측면, 즉 1) 의식구조 개념의 모호성과 2) 분석 수준의 모호성 차원에서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이 다운이 제시한 스웨덴인의 성격 특성을 완전히 부정한다는 의미로 읽혀서는 안 될 것이다. 흥미로운 점 가운데 하나는 과거 민족주의 관점에서 쓰인 문헌에서 제기된 여러 스웨덴인의 특성 가운데 대부분이 다운의 저서에서 재등장한다는 점이다. 다운의 연구는 이미 과거 여러 스웨덴 지식인이 반복적으로 언급한 스웨덴인의 국민적 특성을 과학적 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이미 충분한 학문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운의 것과 비슷한, 하지만 보다 최근의 연구로 Herlitz(2012) 등을 꼽을 수 있다.

3.2.2 헨릭 베리그렌과 라쉬 트레고드의 『과연 스웨덴인은 인간인가?: 현대 스웨덴에서 연대와 독립』

스웨덴인의 국민적 특성에 관한 연구 가운데 비교적 최근의 것으로는 역사가 헨릭 베리그렌과 사회학자 라쉬 트레고드의 저서 『과연 스웨덴인은 인간인가?』를 꼽을 수 있다. 다소 자극적인 이들의 책 제목은 1900년대 초중반 고고학자이자 작가 그리고 언론인으로 활동한 산프리트 네안데르-닐손(Sanfrid Neander-Nilsson)이 1946년 출판한 저서의 제목에서 따왔는데 여기서 이는 마치 ‘얼음장같이 차가운’ 스웨덴인의 극단적인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베리그렌과 트레고드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처럼 개인의 철저한 자유를 갈망하는 스웨덴인이 동시에 강한 사회적 연대를 형성, 이를 통해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중앙집권적 복지국가를 탄생시킬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들은 먼저 이마누엘 칸트

(Immanuel Kant)가 제시한 ‘인간의 비사교적 사교성(die ungesellige geselligkeit; 영어로는 the unsocial sociability)’ 개념에 주목한다. 여기서 ‘인간의 비사교적 사교성’이란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하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행동이 주변 사람의 저항을 초래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불쾌하지만 그렇다고 관계를 포기할 수도 없는 동료와 함께할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의 불가피한 측면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인간은 사회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고자 하는 비사교적 특성,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다른 사람과 함께 사회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교적 특징을 동시에 가진다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이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연대가 필연적으로 항상 갈등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각의 사회는 이러한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연대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는 후자보다 전자의 가치를, 반면 사회주의는 전자보다 후자를 강조하는 나름의 해결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 외에도 또 다른 제3의 해결책이 분명 그 중간 어딘가 여럿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연대 간 갈등은 ‘양자택일’의 문제, 즉 한 쪽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경우 다른 쪽의 가치가 훼손되며, 따라서 양립이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베리그렌과 트레고드는 스웨덴의 경우 이들 간 양립 문제를 ‘국가주의적 개인주의(statsindividualism; 영어로는 statist individualism)’라는 스웨덴만의 독특한 사상에 기반하여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국가주의적 개인주의’라 함은 베리그렌과 트레고드가 자신의 저서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용어로서 오직 높은 수준의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형성된 ‘강한’ 국가 속에서 개인은 진정으로 완벽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스웨덴 특유의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연대 간 갈등 해결 방식을 지칭한다. 이들은 스웨덴인에게 있어서 ‘완벽한’ 사랑은 철저한 개인의 독립을 전제로 한다고 적으면서, 이를 ‘스웨덴식 사랑의 이론(den svenska teorin om kärlek)’이라고 칭한다. 다시 말해, 스웨덴인은 ‘사람보다 산의 돌을 사랑하는’

외로운 -또는 위에서 언급된 칸트의 표현을 빌자면 ‘비사교적인’- 인간이며, 더욱 정확하게는 이들은 자신이 원할 때만, 혹은 준비되었을 때만 인간 관계를 맺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의 철저한 독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스웨덴인은 독특하게도 국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은 강력한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가족이나 친족 또는 종교 및 시민 단체 등이 아닌 국가가 모든 사회 안전망 구성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개인은 타인에게 의지할 필요 없이 자신의 철저한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극단적인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나타날 법한 거대한 중앙집권적 정부 그리고 강한 시민 연대가 동시에 조화롭게 공존하는 전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사회 형태를 만들었다.

베리그렌과 트레고드는 스웨덴의 이러한 국가주의적 개인주의 사상이 1800년대 중반 이후 스웨덴 사회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두 가지 거대한 사상적 흐름, 즉 자유주의적 민족주의(liberal nationalism)와 사회민주주의(socialdemokrati)가 서로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들 간 간극을 메꾸고자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형성된 사상적 대안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소위 ‘스웨덴 모델’의 핵심을 이룬다고 보았다(Trägårdh, 1990). 이러한 맥락에서 스웨덴인의 국민적 특성과 스웨덴 모델은 서로 떼어내고 싶어도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스웨덴 모델’이 양면성, 즉 철저하게 이성적이면서 공동체적인 ‘유토피아’ 이미지 그리고 동시에 ‘지루한’ 동조, 즉 국가 권력에 대한 높은 믿음에 기초한 새로운 전체주의 이미지를 가지는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주제인 스웨덴인의 국민적 특성과 관련하여 베리그렌과 트레고드는 지금까지 위에서 소개된 다양한 스웨덴인의 특성도 결과적으로 이들이 ‘인간의 비사교적 사교성’ 문제를 나름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일종의 ‘부산물’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들이 제시하는 스웨덴인의 국민적 특성, 즉 ‘스웨덴식 사랑의 이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국가주의적 개인주의’ 사상은 본 연구자의 판단을 따르면 기본적으로 다운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관련 논의와 매우 비슷한 모양새를 보

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운이 제시한 나머지 스웨덴인의 성격 특성, 즉 수줍음, 독립심, 갈등 회피, 솔직함 그리고 더불어 국민 정체성으로서 근대성 및 합리성 등은 모두 ‘개인주의 집단주의’ 특성의 부산물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베리그렌과 트레고드의 연구는 단순히 스웨덴인의 국민적 특성을 열거한 것이 아닌, 좀 더 근본적인 차원의 문제 제기를 통해 그 핵심을 추출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다운의 연구보다 이론적으로 진일보한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이들의 이론적 논의는 위에서 언급된 ‘인간의 비사교적 사교성’ 등과 같이 모든 사회가 필연적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딜레마를 각각의 사회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고 주장한 Kluckhohn & Strodtbeck(1961)의 비교문화 연구 모형과 매우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이들은 자신의 연구를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결코 비교문화 연구의 일종으로 간주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점은 분명 해당 연구의 비교문화적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비교문화 연구 분야에서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 차원은 일반적으로 서로 배타적인 관계로 인식되는 편이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들의 연구는 특히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스웨덴식 공존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특히 흥미롭다.

3.3 비판과학 관점에서 바라본 스웨덴인의 국민적 특성 담론에 대한 비판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위에서 언급된 각종 연구는 기본적으로 스웨덴인의 국민적 특성을 ‘실존하는’ 무엇, 즉 객관적 원인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 보았다. 비록 위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스웨덴 특유의 기후, 즉 낮이 짧고 밤이 긴 스웨덴의 ‘우울한’ 겨울 또는 역사적으로 중세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 비록, 반론도 존재하지만 - 자영 농민의 높은 사회적 지위 등은 스웨덴인의 국민적 특성 형성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핵심 원인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종종 지목된 바 있다(Daun, 1994).

하지만 또 다른 일련의 연구는 위에서 언급된 스웨덴인의 여러 국민적 특성이 실제로는 특정한 의도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안에 숨어 있는 이념 및 권력 관계를 비판적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수집된 연구 가운데 특히 최근 연구의 경우 절대다수가 여기에 속한다. 이들 연구는 외국에서 태어난 인구 비율이 이미 20%에 육박하는 현대 스웨덴 사회에서 공통의 ‘국민적’ 특성이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면서, 소위 ‘스웨덴다움’에 관한 논의가 가지는 사회적 함의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는 이들 관련 연구를 두 덩어리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덩어리는 위에서 소개된 스웨덴인의 여러 국민적 특성이 역사적 차원에서 어떠한 사회적 구성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살펴보는 연구를 포함한다. 두 번째 덩어리는 특히 현대 스웨덴 사회에서 ‘스웨덴다움’이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차별과 배제의 논리를 살펴보는 연구를 포함한다. 첫 번째 덩어리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관련 연구로 빌리 에엔(Billy Ehn), 요나스 프뤼크만(Jonas Frykman) 그리고 오르바르 뢰프그렌(Orvar Löfgren)의 공저 『스웨덴의 스웨덴화: 국가의 변화(försvenskningen av Sverige: det nationellas förvandlingar)』(1993) 등을 꼽을 수 있다. 두 번째 덩어리의 경우 몇몇 스웨덴 국가공식 보고서(statens offentliga utredningar, SOU)가 관련 주제를 다룬 바 있다.

3.3.1 ‘스웨덴다움’의 사회적 구성 과정 관련 연구

빌리 에인과 그의 동료는 공저 『스웨덴의 스웨덴화: 국가적 변화』에서 1800년대 중반 이후 자연 속에서 홀로 목가적 삶을 추구하는 농민 문화(bondekultur)가 어떻게 왕, 군대, 종교 등을 대신하여 민족적 차원에서 스웨덴을 하나의 국가로 묶는 심리적 기제로 작용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또한 1930년대 이후 ‘민중의 집(folkhemmet)’ 개념이 어떻게 대다수 스웨덴 민중에게 근대적 가치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광범위한 사회적 연대를 끌어낼 수 있었는지 민족지학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론적 차원에서 이는 ‘스웨덴다움’을 민족주의 사상이 만들어낸 사회적 결과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국가 또는 민족을 ‘상상된 공동체’라고 주장하는 베네틱트 앤더슨(Anderson, 2006)의 논지와 그 궤를 같이 한다.

이들은 이러한 ‘스웨덴다운’이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농민 문화와 관련하여 이들은 일반적인 스웨덴 농촌의 삶과 여러 가지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달라나 지방 농촌의 삶이 특히 도시 거주 중산층에게 어째서 가장 ‘스웨덴다운’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는지 서술한다. 다시 말해, 달라나 지방 농촌의 경우 ‘행복한’ 목가적 분위기를 망가뜨릴 수 있는 무산 노동자 수가 적었으며, 자유를 사랑하고 개인주의적이며 원칙을 중시함과 동시에 정직, 명예, 전통에 대한 애정 그리고 자연 속에서 단순한 삶 등을 추구하는 달라나 지방 농민의 전형적인 모습이 당시 새로운 사회 계층으로 급속하게 성장하던 도시 거주 중산층이 가지고 있던 농촌에 대한 신화적 이미지와 결부되어 새로운 ‘농민 문화’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 증거로서 이들은 스톡홀름에서 1891년 개장한 야외 박물관 ‘스칸센(Skanssen)’이 달라나 지방 농촌의 모습을 그대로 스톡홀름으로 옮겨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주장을 따르면 위에서 스웨덴인의 대표적인 국민적 특성 가운데 하나로 빈번하게 언급된 자연에 대한 사랑은 사실상 어느 정도 부유한 – 따라서, ‘목가적인 삶’을 동경할 만한 여유가 있는 – ‘중산층’의 전유물로서 그 안에 이미 계급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Frykman & Löfgren, 2019).

스웨덴 국가가 가지는 의미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대부분의 스웨덴인에게 있어서 1800년대 말까지 국기는 왕, 군대 혹은 귀족 등을 의미했으며, 따라서 ‘나’와는 별 상관없는, 즉 개념 자체가 생소한 것이었다. 하지만 1916년 스웨덴 정부가 6월 6일을 ‘국기의 날(Svenska Flaggans dag)’로 제정하는 등 위로부터의 다양한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점차 스웨덴 국기는 국가, 즉 스웨덴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으며, 현재 스웨덴은 일상생활에서 국기를 가장 많이 애용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Löfgren, 1991).

또한 이들은 이미 위에서 다룬이 지적한 스웨덴인의 근대적이고 합리적

인 이미지는 이전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1930년대의 ‘독특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Inom arkitektur, konsthantverk, litteratur och samhällsdebatt växte det fram en definition av svenska egenskaper som alla var modellerade på samhällsingenjören – den pragmatiska och kallt resonerade. Han kunde lösa bostadsplanering och sexualfrågor med samma balanserade och operationellt effektiva sakkunskap. Tekniska liksom mellanmännliga frågor kunde definieras som problem vilka kunde bli föremål för vetenskaplig analys med ty åtföljande lösning. Här möter vi den folkliga och vardagsförnuftige svensken, som sägs ha lagt 1800-talets sociala orättvisor och maktmissbruk på tryggt avstånd. Den nye Medelsvensson blir själva inkarnationen av det unga demokratiska samhället. (Ehn, Frykman & Löfgren, 1993, p. 155)"

(번역) “건축, 공예품, 문학 그리고 사회적 논의 등에서 사회 공학에 기초한 실용적이고 냉철하게 이성적인 스웨덴인의 특성이 정의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스웨덴인은 균형 잡힌 그리고 운영상 효과적인 전문 지식과 함께 거주 계획과 성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었다.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등과 같은 문제도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과학적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로 정의될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민주주의적이며 상식적인 스웨덴인을 만날 수 있다. 이들은 1800년대의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권력 남용 등과 거리를 두었다. 이러한 새로운 평균적인 스웨덴인은 젊은 민주주의 사회의 화신이 되었다.”

더불어, 이들은 이와 같은 과학적 사고방식에 기초한 ‘사회 공학적’ 분위기가 스웨덴에서 출현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으로 대공황 이후 스웨덴 사회에 널리 퍼진 미래에 대한 강한 낙관주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립국의 위치를 고수함으로써 전화를 피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이러한 스웨덴인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로서 우생학(eugenics)의 등장 등을 꼽는다.

빌리 에인과 그의 동료뿐만 아니라 다른 몇몇 연구자도 해당 주제를 다룬 바 있다. 예를 들어, Thomasson(2015)는 1900년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 발생한 스웨덴 교육 과정 개편에서 ‘바람직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어떠한 가치가 중시되었는지 살펴본 바 있다. 연구 결과, 1900년대 초반에는 ‘신’과 ‘왕’ 그리고 ‘조국’에 대한 충성심 또는 도덕적 책무 등과 같은 가치가 강조됐지만, 1900년대 중반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과학적 사고방식 및 비판적 의식 함양 등이 강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변화와 상관없이 자국 우월주의를 강조하는 기조는 꾸준히 유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비슷한 연구로 Fredrikson(2010)은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중반까지 스웨덴 학교에서 사용된 각종 지리학 교과서에서 ‘스웨덴다운’ 것과 ‘스웨덴답지 않은’ 것이 어떻게 기술되었는지 살펴본 바 있다. 연구 결과, 1800년대 후반부터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사용된 교과서의 경우 주로 생물학적 결정론 관점에서 ‘스웨덴다운’ 것을 ‘스웨덴답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서 전자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이후에 사용된 교과서의 경우 이러한 전자의 우수성을 소위 ‘복지 민족주의(välfärdsnationalism)’ 관점에서 기술하는 경향을 보인다.

위에서 열거된 몇몇 사례 및 연구 결과는 스웨덴인의 국민적 특성이 가지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스웨덴다운’은 1800년대 중후반 이후 민족주의 사상에 따라 스웨덴이라는 국가라는 하나의 단일 공동체로 묶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결과물로서 그 본질은 ‘불변의 법칙’이 아닌 사회적 합의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연구는 위에서 언급된 다양한 스웨덴인의 국민적 특성이 실제로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었는지 그 이면을 자세하게 살펴본다는 점에서 아마도 가장 큰 학문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3.2 ‘스웨덴다운’ 내 숨겨져 있는 차별과 배제의 논리 관련 연구

지금까지 ‘스웨덴다운’을 살펴본 여러 선행 연구 가운데 상당수는 전체

스웨덴 인구 중 외국에서 태어난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통계청 자료 기준 19.1%(약 195만 명)에 달할 정도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스웨덴 사회에서 공통의 국민적 특성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현대 스웨덴 사회에서 ‘규범화된 스웨덴다움’이 가지는 사회적-보통, 차별적- 의미를 탐구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스웨덴다움’ 개념 안에는 이미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에 대한 사회의 구조적 차별을 정당화하는 가치 판단의 논리가 숨어 있으며, 따라서 ‘스웨덴다움’을 내용적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은 어떠한 의미도 갖지 못하며, 핵심은 이것이 어떻게 특정한 사회적 집단, 즉 파란 눈과 하얀 피부를 가진 ‘토종’ 스웨덴인의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쓰이는지 파악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학문적 차원에서 이들 연구는 비판적 사회과학(critical social science), 좀 더 구체적으로는 비판적 백인성 연구(critical whiteness study) 및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 비평 이론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이러한 논리적 맥락을 따르면 지금까지 위에서 언급된 스웨덴인의 다양한 국민적 특성은 사실상 그 내용에 상관없이 특정 집단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꺼내어 쓸 수 있는 일종의 ‘도구’로 여겨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스웨덴다움’의 진정한 이해는 기능주의 관점에서 이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를 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가 아닌-즉, ‘도구’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닌- 사회 구성주의 관점에서 이를 누가 언제, 어디서, 왜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파악함으로써 비로소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 연구는 위에서 소개된 비교문화 연구 결과를 매우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 이는 이론적 차원의 비판뿐만 아니라, 특히 이들 연구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론, 설문조사의 근본적인 한계점에 집중되는 모양새를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련의 선행 연구가 ‘규범화된 스웨덴다움’ 속에 숨어 있는 인종주의 그리고 ‘우리’와 ‘그들’ 간 뚜렷한 구분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스웨덴 사회 내 구조적 차별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들 연구 가운데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스웨덴 국가공식 보고서 『파랗고 노란 온실 -스웨덴 내 구조적 차별(Det blågula glashuset -Strukturell diskriminering

i Sverige, SOU 2005:56』(2005)은 스웨덴인의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스웨덴의 인종주의는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예를 들어, 전 세계에서 인종 생물학 연구소를 처음으로 설립한 국가는 스웨덴이었다는 점 등- 이로 말미암아 거의 모든 사회 분야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차별을 기술한다. 예를 들어, 대중 매체 분야의 경우 평등과 연대를 강조하는 ‘스웨덴다움’이 스웨덴 사회 내 엄연히 존재하는 인종차별을 지엽적 문제로 치부하도록 만들었으며, 동시에 여론 형성 과정이 스웨덴 백인 위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이들이 불편해할 만한 주제는 대중 매체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스웨덴 노동환경연구소(Arbeitslivsinstitutet)가 2003년 발표한 보고서 『서민적 관료주의와 규범화된 스웨덴다움(Gräsrotsbyråkrati och normativ svenskhet)』(2003)은 일자리를 구하는 외국인 이민자가 직면하는 여러 문제 및 가능성 등을 취업센터 담당자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총 14건의 심층 면접을 통해 확인하고 그 안에 숨어 있는 각종 담론을 분석한 바 있다. 참고로 2018년 스웨덴 통계청 기준 외국에서 태어난 인구, 즉 이민자의 실업률은 15.4%, 그리고 스웨덴에서 태어난 인구의 실업률은 3.8%로 여전히 매우 큰 격차를 보인다.

인터뷰 결과, 취업센터 담당자는 직업을 얻기 위해 필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로 ‘스웨덴다움’에 기반한 각종 사회적 능력 및 규범에 대한 지식을 꼽으면서, 특히 젊은 외국인 이민자의 경우 이러한 능력 및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비슷한 예로, 이들은 많은 무슬림 여성이 여전히 남녀평등을 중시하는 스웨덴 성 규범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여성의 자유를 심하게 억압하는 무슬림 문화를 따르는 관계로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 폭이 너무 좁아진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꽤 단호하게 모든 여성 외국인 이민자는 스웨덴 성 규범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예는 노동 시장에서 암묵적으로 ‘스웨덴다움’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 외국인 이민자의 경우 필연적으로 구조적인 차별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적 소외감(utanförskap)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의회에서 각각의 정당이 발언한 내용을 분석한 Davidsson(2009) 등도 이와 비슷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카트린 룬드스트룀(Catrin Lundström)은 자신의 박사 논문 『스웨덴 라틴계 여자: 스웨덴다움의 지리학에서 인종과 계급 그리고 성별(Svenska latinas: Ras, klass och kön i svenskhetens geografi)』(2007)에서 스톡홀름 지역에 거주하는 총 29명의 라틴계 여고생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시행한 후, 해당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의 스웨덴 사회에 대한 소속감 혹은 소외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면접 결과, 그녀는 이들의 소속감 혹은 소외감이 생김새, 특히 피부색에 가장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더불어 이들이 속한 사회 계층 및 거주 지역도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상된 공동체’로서 스웨덴을 하나로 묶는 숨겨진 핵심 기제가 위에서 언급된 ‘스웨덴다움’이 아닌 사실상 ‘백인성’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소개된 연구와 전혀 다른 비판적 차원의 연구로 민족학자 칼-올로브 안스트베리(Karl-Olov Arnstberg)의 몇몇 저서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Arnstberg, 1989, 2005, 2010). 그는 외국인 이민자의 지나친 유입으로 말미암아 ‘약한’ 스웨덴 문화가 ‘강한’ 이민자 문화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점차 ‘어두운’ 쪽으로 변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사실상 터부시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변화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현대 스웨덴 사회의 ‘스웨덴다움’을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한다. 이는 스웨덴 내 스웨덴 문화의 지배적인 위치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현상을 살펴보는 것이 아닌, 오히려 반대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본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4. 세 가지 연구의 비교 분석 및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1800년대 초반 이후로 스웨덴 지식인 및 학자가 발표한 스웨덴인의 국민적 특성 혹은 ‘스웨덴다움’ 관련 문헌을 시기별로 그리고 이론적 차원에서 크게 세 가지 덩어리, 즉 1) 즉 1) 민족주의 관점, 2) 사회과학 관점 그리고 3) 비판과학 관점의 문헌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비교 결

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제2차 세계대전 이전 국민 낭만주의 혹은 민족주의 관점에서 쓰인 문헌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스웨덴인의 다양한 국민적 특성 가운데 상당수는 이후 문헌에서도 다시 언급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1) 극단적인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성향, 2) 자연에 대한 깊은 사랑 그리고 3) 실용성, 객관성 및 합리성 등을 추구하는 태도 등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스웨덴인의 국민적 특성을 몇 가지 핵심어 위주로 요약·제시해야 한다면 이들 특성이 당연히 목록 최상단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평등, 타협, 연대 등과 같은 가치가 스웨덴 사회에서 유난히 강조되는 이유도 이들 특성을 통해 설명 가능하다. 예를 들어, 베리그렌과 트레고드는 이를 국가주의적 개인주의 개념을 통해 매우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둘째로, 각각의 ‘덩어리’에 속하는 문헌은 연구의 목적 및 범위 그리고 방법 차원에서 매우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특히 사회과학 관점과 비판과학 관점의 연구는 근본적인 존재론적 혹은 인식론적 차원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관계로 사실상 서로 양립이 불가능한 모습을 보인다. 물론, 후자의 주장, 즉 스웨덴인의 국민적 특성이 자기 민족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여기서 ‘구성된 것’이라는 의미가 단지 스웨덴인의 국민적 특성은 실체가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도 곤란할 것이다(Hagerman, 2019).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스웨덴인의 국민적 특성 관련 연구의 흐름은 특히 인류학 또는 민족지학 분야에서 1960~70년대 활발하게 논의된 문화의 본질주의(essentialism) 개념과 사회 구성주의(constructionism) 개념 간 대립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스웨덴인의 특성 관련 연구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연구 방향, 즉 1) 비교문화 관점에서 국가 간 체계적인 비교를 통해 스웨덴인의 고유한 성격 특성을 규명하거나, 또는 2) 비판과학 관점에서 ‘스웨덴다움’ 속에 숨어 있는 이념 및 권력 관계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연구 방향과 관련하여 적어도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연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종류의 연구는 스웨덴인의 ‘전통

적’ 성격 특성이 다문화 된 스웨덴 사회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 혹은 여전히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예테보리 대학교 내 독립 설문조사 기관 SOM은 198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스웨덴인의 각종 태도 및 행동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보고한 바 있으며, 조사 결과를 따르면 스웨덴인의 가치 체계는 최근 약 30년간 몇몇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SOM, 2019). 이는 오키 다운이 지적한 스웨덴인의 성격 특성 가운데 적어도 일부는 현재 시점에서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종류의 연구는 스웨덴인의 국민적 특성으로 이미 다양한 성격 특성이 열거된 상황에서 단순히 새로운 특성을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아닌, 이러한 특성의 근본적인 뿌리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베리 그렌과 트레고드의 연구는 매우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연구 방향의 경우에도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연구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지금까지 대다수 관련 선행 연구는 ‘스웨덴다움’ 담론 내 숨겨진 이념 및 권력 관계를 ‘토종’ 스웨덴인과 외국인 이민자 간 관계 속에서 찾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향후 연구는 이를 훨씬 다양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다국적 가구 회사 이케아의 경우 한국을 포함, 전 세계에 여러 매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국적을 막론하고 ‘스웨덴다움’을 비즈니스 모델의 일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결정도 자기 민족 중심주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행위의 의도는 무엇이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 두 번째 연구는 안스트베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스웨덴다움’ 담론이 사실상 터부시되고 대신 탈민족주의 담론이 지배적인 담론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대 스웨덴 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 또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제3의 논리 등을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자는 가급적 여러 학술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다양한 검색어를 사용, 스웨덴인의 국민적 특성을 다루는 선행 연구를 최대한 폭넓게 수집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국민적 특성’ 개념 자체의 모호함으로 말미암아 몇몇 중요 관련 연구가 수집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매우 다양한 분야의 연구

결과물을 하나의 틀 속에서 무리하게 묶는 과정에서 개별 연구의 깊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이를 너무 도식화하여 소개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아직 관련 연구를 총체적으로 소개하는 연구가 사실상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다소 의도된 바가 없지 않으며, 앞으로 좀 더 깊이 있는 후속 연구를 통해 다루어져야 할 문제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노명환(2009). 역사를 통해 본 스웨덴 기업문화의 특징. 국제지역연구, 12(4), 141-161.
- 박병현(2005). 복지국가 발달의 문화적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7(3), 277-304.
- 변광수(1997). 스웨덴인의 의식구조. 외국학종합연구센터 편, 세계인의 의식구조 1,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 이성준, 김기수(2018). 국내 스칸디나비아 지역 연구의 흐름과 동향. 스칸디나비아 연구, 21, 1-34.
- Almqvist, C. J. L. (1995). *Svenska fattigdomens betydelse*. In Svenska krusbär, Stockholm: Bonnier Alba.
- Andersson, B. (2006).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Rev. ed.). London: Verso.
- Arbetslivsinstitutet. (2003). *Gräsrotsbyråkrati och normativ svenskhet*. Stockholm: Arbetslivsinstitutet.
- Arnstberg, K-O. (1989). *Svenskhet: Den kulturförnekande kulturen*. Malmö: Carlssons förlag.
- _____ (2005). *Typiskt svenskt*. Stockholm: Carlssons förlag.
- _____ (2010). *Mera svenskt*. Malmö: Carlsson Bokförlag.
- Barth, F. (1969). *Ethnic groups and boundaries*.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 Berggren, H., & Trägårdh, L. (2015). *Är svensken människa? Gemenskap och oberoende i det moderna Sverige*. Stockholm: Norstedts.
- Brandell, G. (1944). *Svensk folkkaraktär: Bidrag till det svenska folkets psykologi*. Stockholm: Effellves.
- Daun, Å. (1994) *Svenska mentalitet*. Stockholm: Rabén Prisma.
- Davidsson, T. (2010). Utanförskapelsen. En diskursanalys av hur begreppet utanförskap artikulerades i den svenska riksdagsdebatten 2003 - 2006.

- Socialvetenskaplig Tidskrift*, 17(2), 149-169.
- Ehn, B., Frykman, J., & Löfgren, O. (1993). *Försvenskning av sverige: det nationellas förvandlingar*. Stockholm: Natur & kultur.
- Fredrikson, E. (2010). *Svenskhetsideal: En studie av läromedel i geografi utgivna 1877 - 1951*. Arbetsrapporter Kulturgeografiska institution Nr. 720.
- Frykman, J., & Löfgren, O. (2019). *Den kultiverade människan*, 2 uppl. Malmö: Gleerups.
- Geijer, E. G. (1999). *Dikter*. Stockholm: Atlantis.
- Hagerman, M. (2019). *Trådarna i väven*. Stockholm: Norstedts.
- Heidenstam, V. (2013). *Om senskarnes lynne*. Göteborg: Mimer bokförlag.
- Herlitz, G. (2012). *Svenskar - hur vi är och varför*. Malmö: Liber AB.
- Karlsson, J. CH. (1994). Finns svenskhet? En granskning av teorier om svenskt folklynne, svensk folkkaraktär och svensk mentalitet. *Sociologisk Forskning*, 1, 41-57.
- Key, E. (1995). *Om patriotismen. Öppet brev till min vän Verner von Heidenstam*. In Svenska krusbär, Stockholm: Bonnier Alba.
- Kluckhohn F. R., & Strodtbeck F. L. (1961). *Variations in value orientation*. New York: HarperCollins.
- Löfgren, O. (1991). The nationalization of culture: Constructing Swedishness. *Studia Ethnologica Croatica*, 3(1), 101-116.
- Lundström, C. (2007). *Svenska latinas: Ras, klass och kön i svenskhetens geografi*. Göteborg: Makadam.
- McCroskey, J. C., Burroughs, N. F., Daun, Å., & Richmond, V. P. (1990). Correlates of quietness: Swedish and American perspectives. *Communication Quarterly*, 38(2), 127-137.
- Montgomery, H. (1989). Myter om svensken. *Tvärsnitt*, 11(3), 38-44.
- Schwartz, S. H. (2006). Value orientations: measurement,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across nations. In R. Jowell, C. Roberts, R. Fitzgerald, & G. Eva (Eds.), *Measuring attitudes cross-nationally - lessons from the*

- European social survey*. London: Sage.
- SOM. (2018). *Swedish trends 1986 - 2017*. Göteborg: SOM.
- SOU 2005:56. (2005). *Det blågula glashuset: Strukturell diskriminering i Sverige*. Stockholm: Statens offentliga utredningar.
- Strindberg, A. (2003). Nationalitet och svenskhet. In H. Lindström (Ed.), *August strindbergs samlade verk, Vol. 17, Likt och Olikt I-II samt uppsatser och tidningsartiklar 1884 - 1890*. Stockholm: Norstedt.
- Sundbärg, G. (1911). *Det svenska folklynnnet: Aforismer*. Stockholm: Norstedt.
- Thomasson, A. (2015). Cultivating Swedishness? Examples of imagined kinship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Policy Futures in Education*, 13(6), 751-762.
- Thurfjell, D. (2019). *Det gudlösa folket: de postkristna svenskarna och religionen*. Farsta: Molin & Sorgenfrei.
- Trägårdh, L. (1990). Swedish model or Swedish culture?. *Critical Review*, 4(4), 569-590.
- Żumda-Trzebiatowska, M. (2003). Från Göticism till “det svenska folklynnnet”. Om Äldre traditioner i svensk identitetsforskning. *Folia Scandinavica*, 7, 145-159.

<Abstract>

Research Trend of Swedishness: A Literature Review

Lee, Sung-J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llect and analyze the previous literature of ‘Swedishness’ or ‘Swedish national character’ published by Swedish intellectuals and academics during the early 1800s to the present to eventually suggest some interesting future research directions. Reviewing the literature, the following three groups of literature emerged, namely the literature based on 1) nationalism, 2) social science and 3) critical science. The literature from the nationalistic perspective as well as from the social science often cited 1) radical individualism, 2) the love of nature and 3) practicality, objectivity and rationality as the national traits or characteristics of Swedes. On the other hand, the literature from the critical science perspective put a greater emphasis on revealing the hidden ideologies or agenda behind “Swedishness” discourses. Based on the discussions, this study suggests four different future research directions.

Key Words: Swedishness, national character, Swedish culture, nationalism, romantic nationalism, critical social science, ethnic and racial discrimination

* Department of Scandinavian Languag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성명: 이성준(Lee, Sung-Jun)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스칸디나비아어과
E-mail: sungjun_lee@hotmail.com

논문 접수일: 2019.11.16. 논문심사 완료일: 2019.12.22.
수정원고 접수일: 2019.12.24. 게재 확정일: 2019.12.29.